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대학교	기간	1/14~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교 위치는 벤쿠버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도 전반적으로 편리한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좋았다. 시설은 엄청 넓지는 않지만 실내 강의실과,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이 잘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또한 홈스테이 하는 곳과도 교통이 편리해서 환승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했었다. (각 홈스테이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버스 하나만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수업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벤쿠버 교통이나 문화,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배운 후 기술적인 수업은 보통 오후에 한다. 저널쓰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등에 대해서 배웠다. 수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보통 오후 3시에 끝나지만 겨울의 벤쿠버는 날이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반은 없었으며 순천향대학교에서 온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 강사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수업준비에 대해 열정적이셨다. 과제는 밤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과제여서 큰 부담은 없었다. 매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수업시간 대신 아쿠아리움, 박물관, 그랜빌 아일랜드, 컬링, 스노우 슈잉의 활동으로 대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Activity	<p>위에서도 말했듯이, 오후 수업 대신에 박물관, 컬링,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스노우 슈잉, 벤쿠버 친구들과 친해지기 등의 활동을 했다.</p> <p>컬링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다른 활동은 스쿨버스를 타고 갔다.</p> <p>컬링, 스노우 슈잉 - 컬링과 스노우 슈잉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벤쿠버 스포츠로 정말 재미있었다. 낯선 스포츠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장갑은 정말 필요하고 모자, 패딩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 스노우 슈잉은 자기가 직접 부츠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8달러 정도 내면 렌트가 가능하다. (나는 렌트하는 것을 추천한다.)</p> <p>박물관 - 벤쿠버 박물관은 벤쿠버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전시되어 있고 별도로 재미있는 전시관이 또하나 더 있다. 박물관에 가기 전에 팀별로 각자 조사해야할 역사관을 정한다음 박물관에 간다. 세계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p> <p>아쿠아리움 - 벤쿠버 아쿠아리움은 해파리와 열대어, 개구리, 북극 동물들을 볼 수 있다. 아쿠아리움은 다같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관찰하고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들 4가지를 관찰하라는 종이를 준다. 실내는 해파리, 열대어 등 물고기 종류이고 실외는 바다표범, 수달, 펭귄등을 볼 수 있다. 시간이 금방 가는 활동이다.</p> <p>- 박물관과 아쿠아리움을 다보고나서 기념품 판매점이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벤쿠버 = 레인쿠버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주일에 3번이상은 비가 온다. 하지만 벤쿠버는 우산이 비싸기 때문에 우산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너무 두꺼운 패딩은 더울 수 있다.
안전	벤쿠버는 보통 일몰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진다. 놀다가도 10시 이전에 홈스테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홈리스 분들이 다운타운이나 개스타운에 많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개스타운 끝쪽에는 차이나 타운이 있는데 저녁에는 그쪽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마약하는 분들과 홈리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벤쿠버 시민들이 친절하고 호의적이기

	때문에 몇가지 점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는 각자마다 다르지만 시설은 가정집과 똑같고, 홈스테이 분위기는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거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분위기였다. 할머니 한분과 같이 생활했는데, 캐나다는 화장실을 건식으로 쓰기 때문에 세면대를 쓰고 주변 물이 튕 곳을 화장지로 닦고, 항상 자신이 먹은 그릇은 설거지하는게 주요 규칙이었다. 빨래는 해주셨는데, 이분은 각 홈스테이마다 다르니 방법을 여쭙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그리고 보통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겨울 밴쿠버는 밤이 쌀쌀하니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자야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나는 아침과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준 밥을 먹고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었다. 아침은 보통 시리얼이나 식빵구운 것, 달걀 후라이, 각종 소스를 준비해 주셨다. 간단하게 금방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점심은 항상 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매번 메뉴를 다르게 해주셔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잘 먹었다. 어쩔 땐 저녁으로 먹고 남은 반찬들을 싸주시는데 한국도 그러니 상관하지 않았다. 외부식당은 인터넷 검색으로 맛집을 자주 찾아다녔는데, 밴쿠버는 다른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라서 여러 나라 요리 식당이 많다. 특히 중국과 일본 맛집이 많았다. 나는 밴쿠버 음식에 전반적으로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다. 홈스테이 할머니 분이 필리핀에서 이민 오셔서 밥을 자주 해 주셨고, 요리를 취미로 하셔서 입맛에 딱 맞았다. 그래도 가끔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서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었다. 한식입맛이신 분은 미리 고추장이나 라면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교통	<p>통학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집에서 7분정도 걸어가면 49번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 있는데 그것만 타면 학교 앞에서 바로 내릴 수 있었다. 랑가라 학교 학생들도 9시에 통학을 많이 해서 사람이 붐빌 때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꽉 차서,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다.</p> <p> 시내교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학교에서 주는 교통카드를 한달 동안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구글맵 어플을 다운로드 해서가면 웬만한 교통편은 쉽게 탈 수 있다.</p>

	<p>하지만 밴쿠버는 1존, 2존, 3존 이렇게 나뉘져 있는데 버스를 타고 1존에서 2존으로 넘어가면 교통비가 더 붙지 않지만 스카이트레인(한국의 지하철 느낌)을 타고 1존에서 2존으로 넘어가면 추가요금을 내야한다.</p> <p>밴쿠버 교통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사실 학교 오티하는 날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항공료 : 1,372,900 보험료: 33,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400달러 (35만원)	
쇼핑	400달러 (35만원)	
여행교통비	40달러 (1만 7천원)	
각종 입장권	60달러 (5만원)	
합계	900달러 (약8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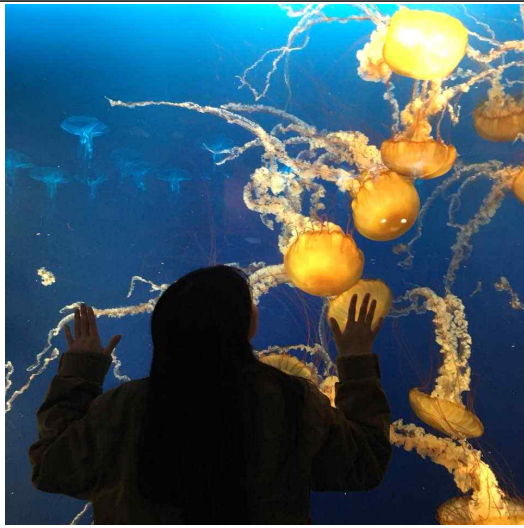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p>출국 전에는 짐 양이 많지 않더라고 여분의 가방하나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밴쿠버에서 이것저것 사다보면 양이 늘어나는데, 짐을 담을 가방이 없으면 수화물 규정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캐리어 2개가 아니더라도 캐리어1개 큰 가방 1개 정도 챙겨가세요!</p> <p>그리고 캐나다 입국심사는 까다로운 분도 있고 널널한 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티켓, 입학허가서, eta 등 출력해가는 것이 좋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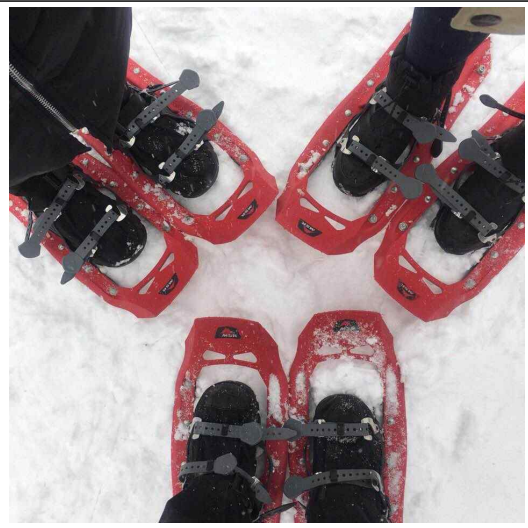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생활이 꿈같은 정도로 너무 좋았다. 방과 후에 있는 시간, 주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캐나다의 문화를 현지 인들과 대화를 통해 경험하려고 가는 것이 내 목표였다. 밴쿠버는 Thank you, Sorry, Excuse me를 자주 쓴다. 이런 표현들이 밴쿠버가 더 신사적이고 열려있는 문화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사실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밤에 잘못 길을 들어서 가게 된 차이나타운 가는 길목과, 그랜빌 아일랜드 다리 밑이 기억나는데,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서 밴쿠버의 이면을 봤던 것이다. 밴쿠버의 명소, 가는 곳곳마다 감흥이 새롭고 친구들과 함께라서 행복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묻거나 음식을 시킬 때 영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나도 캐나다의 문화를 더 열린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또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자분을 알게 되어서 그 분의 집에 초대받아 파티도 참석하고 다른 캐나다 이민자분들과도 알게 되고 함께 재미있는 곳, 맛집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게 기억에 남는다. 캐나다 이민자 분은 딸이 있었는데 6살 정도로 딸의 유치원에 직접 가보고 같이 놀면서 내가 미래에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참고해야할 점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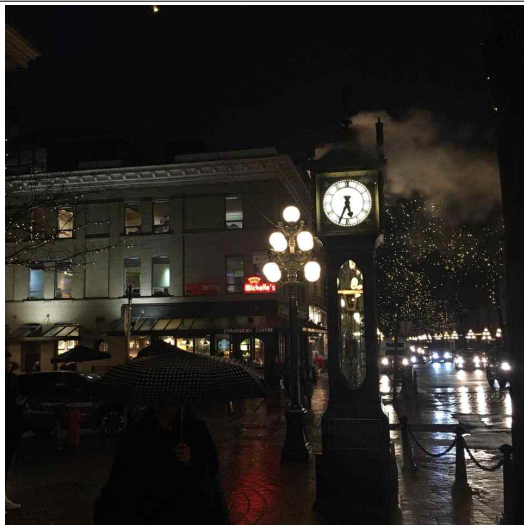
	
<p>스티븐스톤 피자</p>	<p>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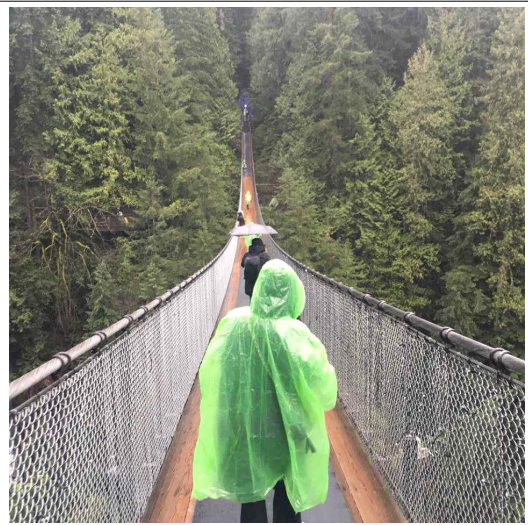
아쿠아리움



스노우 슈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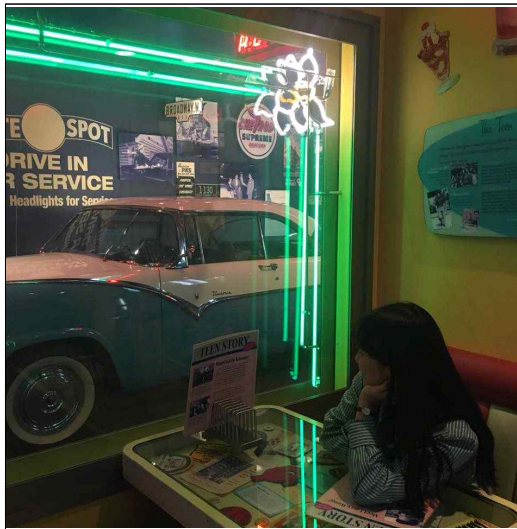


스팀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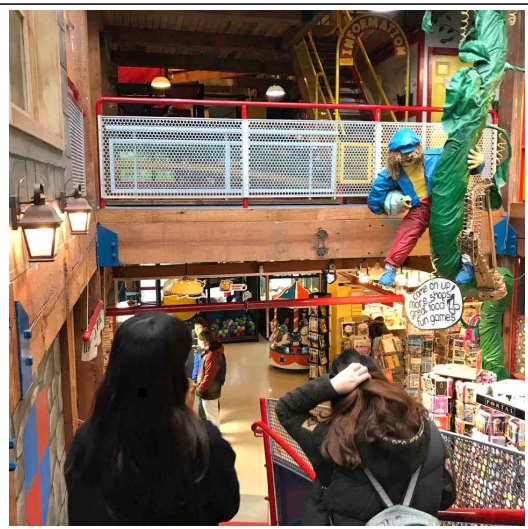


캐필라노 협곡

--	--



벤쿠버 박물관



그랜빌 아일랜드